

20일 남은 여수박람회 막막한 사후활용 대책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람회장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후활용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차입금을 갚기 위해 박람회장 일부 부지를 민간기업에 팔아야 하는데, 경기침체로 싼값에 사겠다는 기업이 나서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국제해양관광센터·해양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 방안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민간업자 없어 부지매각 지지부진 예산 누락 해양관광센터 건립 차질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22일 “최근 사후활용 관련 역량을 마쳐 국토해양부에 보고했고, 일부 부지를 매입하게 될 민간기업을 섭외 중이다”고 밝혔다.

이 용역안에는 폐막 후 기업과 국제관 등의 일부 전시시설을 철거한 뒤 디지탈갤러리, 아쿠아리움, 스카이다이브, 빅오 해상무대, 한국관, 주제관 등은 그대로 남겨두고 폐막 후 재개장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요트·보트 등 해양 레저 전시장 및 매매장 등 해양스포츠·레저 산업, 시푸드 레스토랑 등 요식업, 유람선을 비롯한 관광산업 등 국내외 민간기업유치할 계획이다.

일부 부지를 매각하고, 남은 시설을 활용하는 별도의 사후활용 주체를 만들어 매각하지 않은 전시시설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민간기업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폐막 후 9월께 박람회장을 재개장한 뒤 시간을 두고 매매 기업유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업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박람회의 흥행부진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막전 10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도권과 동떨어져 있는 여수의 지리적 한계도 기업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장료 수입과 부지매각 등을 통해 박람회 준비 과정에 정부로부터 빌린 차입금 4846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또 전남도가 국제관을 국제해양관광센터로 만들고, 한국관을 해양재난안전체험센터로 리모델링

■ 박람회장 영구보존 대상 시설

시설	용도	면적
빅오	해상무대	1,450,000㎡
엑스포갤러리	영상상영	길이 218.24m 너비 30.72m
스카이다이브	전망대, 피아프오관	1,413㎡
아쿠아리움	해양생물전시	16,400㎡
주제관	주제연출	6,000㎡
한국관	한국 해양소개	5,248㎡

하기 위해 국토부에 요청한 233억 원의 예산도 내년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은 탓에 남겨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박람회 관련 정부 실무자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자칫 폐막 후 빚더미 속에서 사후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부지 매각이 되지 않고 정부의 추가 지원도 없다면, 폐막 후 박람회장을 재개장해 조금씩 돈을 벌어가야 하는 민간 기업유치하는 방법밖에는 없게 된 셈이다.

이처럼 사후활용 작업이 차질이 빚으면서 박람회장에 복합 해양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해 여수를 ‘해양관광 및 관련산업의 메카’로 개발하려는 예초 계획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청의 역습... 대형마트에 단속반 풀었다

범원 가져본 따라 휴일 영업 재개한 첫 날, 광산구 55건 적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범원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인 22일 영업을 재개하자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원산지표시와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며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6면>

지난 18~20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 각 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측에 범원의 판결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의무휴업을 자율적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형마트들이 영업에 돌입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8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두 번째 일요일인 12일에 광주지역 대형마트(13곳)와 SSM(17곳)에 대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은 준법영업이라며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8월 중순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범원이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조례에 명시된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조례개정이행절차법에 따라 대형마트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형마트 등은 다

시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하는 등 영업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광산구청이 40명의 단속반을 투입, 대형마트 4곳과 SSM 2곳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벌여 원산지 위반 1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4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불법 주차차 47건 등 총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이 가운데 2건은 시정권고하고 5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최승필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청 직원들이 22일 롯데마트 첨단점 수산물 코너에서 식품 위생상태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있다. 범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이날 광주지역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17곳이 석달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야 대선경선 광주서 스타트

민주 8명, 새누리 5명... 25·26일 첫 합동연설회

여야는 주말을 기점으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4면>

새누리당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호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기호순) 등 대선 경선 주자 5인은 선거운동 첫날인 21일부터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까지 30일간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지난 10~12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전국민의 민생현장을 돌며 정책공약을 발표해 온 이들 5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는 10차례의 합동연설회와 6차례의 TV토론회, 3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상호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는 오는 26일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리는 호남지역 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진행된다. 새누리당

은 합동연설회가 끝난 다음날인 19일 전국 시·군·구별로 대의원·당원·일 반국민 등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고,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위원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비박주자 4인이 연대전선을 형성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도 23일 MBN TV토론을 시작으로 30일까지 8일간 본경선

진출자 5명을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들어간다.

20~21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환 조경태 의원,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총 8명이 도전장을 냈다.

예비경선에서 후보들은 28일까지 5차례의 TV토론과 4차례의 합동연설회를 실시하며, 29~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본경선 진출자 5명이 확정된다. 광주 합동연설회는 오는 25일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 실시되며, 결과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8월 6일~8월 20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폭염

광주·전남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등 두더위하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과 22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광주·전남 6개 시군의 낮 기온은 광주 32.8도를 최고로 나주 32.4도, 화순 32.3도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

22일 새벽에는 광주 등 7개 시·군에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e-jeil.co.kr

2012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수상

2012년 제일풍경채 분양계획(총3,002세대)

분양시기	사업명	세대수
3월	첨단2지구 제일풍경채	613
5월	남악 신도시 제일풍경채	538
8월	세종시 신도시 제일풍경채	436
10월	효천2지구 1차 제일풍경채	275
10월	효천2지구 2차 제일풍경채	438
11월	세종시 신도시 제일풍경채	702

문의 1577-1810